**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서로 연결하라는 부르심**

미국장로교가 서로를 연결한다는 점을 평생 옹호해온 벤 프랭클린 윗필드 목사는 교단의 이러한 방향이 스스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의지할 곳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와배슈 벨리 [노회](https://ourpresbytery.org/)에서 명예은퇴한 벤은 2021년 1월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입원 후 재활 기간을 거친 후 그는 사랑하는 아내 헬렌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시골 교회에서 주로 목회를 했던 윗필드 부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장로교가 서로를 연결하도록 마련한 시스템 중 하나인 [연금국](https://www.pensions.org/)의 [지원 프로그램](https://pensions.org/search?query=assistance+program%27)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플랜 회원과 그 가족에게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윗필드 부부는 '긴급 지원 기금'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았고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월별 주택 보조금'을 통해 장기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윗필드 부부가 받은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1930년대 이후 장로교의 소중한 전통인 미국장로교의 연례[성탄의 기쁨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christmas-joy/)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https://www.pensions.org/your-path-to-wholeness/assistance-program)과 [소수 인종 공동체에 있는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racial-equity-womens-intercultural-ministries/leadership-development-leaders-color/schools-colleges-equipping-communities-of-color/)에 똑같이 분배됩니다.

벤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장로교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신학교 재학 시절, 교단은 벤을 1960년대 시카고에서 싹트고 있던 시민권 운동과 연결시켰습니다.

“미국장로교는 도심에서 더 관련성이 높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흑인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에 신학생들이 함께하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흑인과 백인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젊은이들의 재능과 기술을 키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연결은 아내가 된 헬렌 심스(54세)를 그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60년대에 다인종 부부로서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네 딸을 키우고 있는 윗필드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그가 평생 의지하게 된 감사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벤은 회복 중이며, 집 밖에서 과외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벤을 무척 존경합니다"라고 장로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인 루카스 맥쿨이 말했다. "서로를 연결하는 교단임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삶에서 중요한 시기에 벤과 헬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 리더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우리를 충실하게 인도하고 이끌었지만 현재 변화하는 건강 상황이나 비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한 목사, 교회 사역자 및 그 가족과 같은 지도자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희망과 안정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동안 우리의 도움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많은 변화와 도전과 승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탱해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섬기나이다.* **아멘***.*